

## 2020 강원도 청소년 정책제언대회

제언하는 내용의 주제	<p><b>성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을 높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자</b></p>
제언이유	<p>교과서에서는 평등과 인권을 배우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남녀를 차별하는 시설이나 발언 등이 성 차별적 요소가 만연하다.</p> <p>그러나 성차별적 상황을 시정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성을 배척하고 자신의 성을 우월하게 밀어부친다. 강남 여성혐오 살인사건,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도,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무조건 여성혐오를 드러내거나 이에 대한 반발로 남성혐오 반응이 나오는 등 성 대결적 구도가 펼쳐지기도 한다.</p> <p>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이 오히려 성차별적 발언이나 성폭력에 무감한 발언들을 하여 불편함을 느낀 적이 많았다.</p> <p>체육대회 때 남학생들이 단체 티셔츠 뒤에 “딸.딸.이”라는 말을 써붙이고 다니거나, 1박 2일 캠핑을 가서 텐트 야영을 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의 텐트에 들어가 도촬, 성폭력 등을 암시하는 농담을 해서 여학생들이 매우 불쾌해하는 상황이었는에도, 선생님들조차 이를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시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가르쳐주시지 않은 적도 있다.</p> <p>이를 계기로 성적 우월과 대립이 아니라 성적으로 서로 평등한 환경이 갖춰지고, 우리 모두가 상대의 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감지해내는 성 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p>미투 운동의 확산 등 성(젠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면서 학교에서도 스쿨미투가 많아졌는데, 성에 관한 인식변화가 없다보니 피해가 벌어지면 후발적으로 학교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p> <p>그러나 만약 서로의 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정착되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p> <p>그래서 학교 내에서 성차별적 환경을 평등한 환경으로 바꾸고,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하여 성(젠더)가 평등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다.</p>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고, 학생은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규칙이나 규범은 물론 문화를 폭넓게 학습하고 내면화한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 고정관념, 성역할, 외모지상주의, 성적 대상화 등의 성 차별적이고 성가학적인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

화장실의 남녀 표시는 남자는 파란색에 바지, 여자는 빨간색에 치마로 표기되어 있는데, 남녀를 색으로 구분하거나 바지와 치마로 구분하는 것을 여전히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복도 남학생과 여학생에 차이를 두는데, 남학생 용 조끼에는 안주머니가 있으나 여학생 용 조끼에는 안주머니가 없다. 그리고 교복 상의도 여학생 상의는 남학생보다 더 짧고 허리 부분이 들어가도록 다트가 들어가 있다.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남학생은 바지만 입어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의 모습도 여자는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등 소위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으로 고정되어 있다.

몇몇 선생님들도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하면서, 여학생이 더 섬세하다, 여자는 꾸밈 줄 알아야 한다, 남학생이 더 수학과학을 잘한다, 남자가 왜 우냐, 남자는 무거운 걸 들어야지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하시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 학교편'을 보면, 학교생활에서 성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① 교사의 말과 행동 34.5% ② 교칙 27.5% ③ 학생의 말과 행동 11.2% ④ 교과내용 11% ⑤ 진로지도 10% ⑥ 교훈급훈 4.8%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생활 성차별 언어행동 바꾸기 TOP 5로 ①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수식어(듬직한, 대범한, 멋진 - 남학생 / 조신한, 예쁜, 양전한 - 여학생) ②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편견(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여학생은 수학과학을 잘 못한다, 여자가 무슨 축구를 해, 남학생이 더 수학과학을 잘한다, 남자가 왜 질질 짜냐,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우는거다, 남자는 무거운 걸 들어야지) ③ 여학생에게는 공부를 못해도 결혼만 잘하면 된다, 남학생에게는 지금 공부하면 와이프 외모가 바뀐다는 등의 성적과 외모를 연결하는 말들 ④ 교복(여자는 치마와 바지 선택, 남학생은 바지만 착용), 출석번호(남학생 앞번호, 여학생 뒷번호), 남녀짜꿍 등 당연하게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 ⑤ 시대에 맞지않는 낡은 교훈, 급훈(여고교훈 -아름다워라, 남고 교훈 - 높은 이상을 갖자 등)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겨지고 있어, 상황을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성평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 성인지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규정을 정하고 교육을 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여성가족부 등에서 만든 성희롱, 성폭력 관련 자료들도 많이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 심지어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지에 대한 교육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성차별이나 성폭행 교육도 성폭력을 당하면 이렇게 대처해라 라는 사후처방적인 교육이 대부분이라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선생님들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여전히 미흡하다.

	<p>결국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등 성 관련 문제는 급증하고 있지만, 징계나 형사처벌로 해결하고 있을 뿐 사건 발생 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p> <p>모두 함께 행복한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해, 성에 관한 균형잡힌 교육을 제공하고 시설, 교칙, 교복 등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등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다.</p>
<p><b>제언하는 정책의 내용</b></p>	<p>목적 : 성인지감수성을 높여 성차별, 성가학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서로의 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성대립적 태도를 지양하여 여성, 남성 혐오 문화를 배척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거나 감경시키시기에 데 기여한다.</p> <p><u>1. 시설 개선</u> 여자를 치마를 입은 빨간색 아이콘으로, 남자를 바지를 입은 파란색 아이콘으로 나타내는 학교 내의 화장실 표지판의 내용을 “여자”, “남자”라는 글로 바꾸고 색도 동일하게 한 것으로 교체한다.</p> <p><u>2. 교복 및 교칙 점검 및 개정</u> 교칙(교복 규정 포함)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나열하고, 성 평등한 교칙 표준양식을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 이에 맞게 교칙을 개정하게 한다. 여성 교복에는 없는 경우가 많은 안주머니를 성별 상관없이 모든 교복에 만들고, 성별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젠더리스 교복을 만든다. 또한 셔츠, 넥타이, 조끼 등의 길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p> <p><u>3. 교육</u></p> <p><u>가. 선생님 대상 교육(신규 임용, 1년에 10시간)</u> 현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하여 4시간씩 의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한 번에 4시간을 몰아서 교육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1년에 10시간 이상, 몰아서 하지 않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교육을 진행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소수그룹 토론, 참여형 교육을 실시한다. 실제 사례나 서울시 조사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몇몇 선생님들이 학생이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생님 대상 교육은 중요하다.</p> <p><u>나.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작된 유인물 배포</u> 교육청에서 제작된 학교폭력 사안 가이드 내용을 기반으로 성폭력 처벌 사례를 추가한 가이드를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한다.</p> <p><u>다. 필독서 지정 및 독후감 대회 등 운영(연 1회)</u> 성 평등이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관련한 양서를 필독서로 지정하고 독후감 대회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게 한다.</p> <p><u>라. 학교폭력사안이나 형사 처벌 사례를 공유</u> 학교폭력사안이나 형사처벌 사례를 학생과 교사가 공유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 실제 성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교육하도록 한다.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정작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도덕적으로나 성인지 등에서 무감각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실제 처벌 사례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교사와 동급생들과 공유하며 경각심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 학교폭력사안이나 형사 처벌 사례를 공유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해야 할 행위를 개략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이나 타지역 사건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청 소속 학폭위 위</p>

	<p>원, 변호사, 경찰관 등을 활용하여 생동감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p> <p><u>4. 교과서 및 교과과정 개정</u>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수식어나 삽화나 그림 등을 수정한다. 남자 머리는 컷트, 여자 머리는 긴 머리로 묘사된 그림도 수정한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연간 성교육을 40시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한다. 학생들의 성인지각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보다 실용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낄 수 있는 생물적 개념의 자료와 교육만 제공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자료를 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론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으로 쉽게 잘못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니만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성적 호기심이 폭발하는 중학교과정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1년에</p>
<p><b>기대효과</b></p>	<p>40~50시간 토론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인지각수성을 높이고, 일상이 되어버린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고 없애면서, 기존에 뿌리박힌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다.</li> <li>2.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여성과 남성 등 서로의 성에 대해 이해하고, 고충을 공유하면 성문제에 있어서 성대립적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여성혐오나 남성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li> <li>3. 학교 현장에서 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높은 성인지각수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 앞으로의 사회에서 적합한 사회인으로 교육되고 성장할 수 있다.</li> <li>4. 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학교 내 성폭력(졸업 후 사회에서의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도 줄어들 것이다.</li> </ol>
<p><b>참고자료 및 출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성미디어리터러시, 성허용성이 성인지각수성에 미치는 영향, 권희정·신수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0년</li> <li>- 서울시성평등생활사전 학교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li> <li>-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김수자, 교육비평, 2019년</li> <li>-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성교육, 김영화, 메이트북스</li> </ul>